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북부신문 6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주민 간담회 개최

3개 지역 재건축추진위원장들과 의견 나눠, 서울시장 면담 계획도 밝혀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광연립 채기수 재건축추진위원장, 삼흥연립 강철 재건축추진위원장, 수유1-1구역 황기섭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수유1-1구역은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통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에 대해, 보광연립 및 삼흥연립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취득함 후 향후 사업시행 인

가 신청에 대한 내용과 5층 20m 묶여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고 높이 20m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용적률(2종 지역 200%, 1종 지역 150%) 및 건폐율(1·2종 60%)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채기수 보광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 전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20m이하(완화 시 28m이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최고고도지구완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황기섭 수유1-1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의 고질병이고 숙원사업인 최고고도지구 해결책 모색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법적인 규제를 풀어서 가로주택 정비법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고, 경전철 구간은 지구 조정해서 영업활성화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철 삼흥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조합이 결성돼 현재 추진 중이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계속 존치해 현장답사 등 꾸준히 계속해서 지역 활성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보광연립, 삼흥연립에 대해서는 건물 붕괴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추진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 보광연립과 삼흥연립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후 향후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

강북신문 5면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 위원들이 3개 재건축추진위원장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특위 주민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는 제183회 임시회 폐회중 지난 11월26일 오전 1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재건축조합장들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광연립 채기수 재건축추진위원장, 삼흥연립 강철 재건축추진위원장, 수유1-1구역 황기섭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수유1-1구역은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통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에 대한 계획과 보광연립 및 삼흥연립 일대 재건축사업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내용과 5층 20m 묶여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고 높이 20m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용적률(2종 지역 200%, 1종 지역 150%) 및 건폐율(1·2종 60%) 부분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채기수 위원장은 “강북구 전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20m 이하(완화 시 28m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고 황기

섭 위원장은 “강북구의 고질병이고 숙원사업인 최고고도지구 해결책 모색에 감사드린다”며, “법적인 규제를 풀어서 가로주택 정비법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전철 구간은 지구 조정해서 영업활성화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철 위원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를 존치하여 현장답사 등의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받은 보광연립, 삼흥연립에 대하여는 건물 붕괴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 위원들은 “수익성이 없어서 시공사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보광연립과 삼흥연립 일대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향후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 주민 간담회 개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폐회 중 지난26일 오전 11시 신관2층 접견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보광연립 채기수 재건축 추진위원장, 삼흥연립 강철 재건축추진위원장, 수유1-1구역 황기섭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수유1-1구역은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통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에 대한 계획과 보광연립 및 삼흥연립 일대 재건축사업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내용과 5층 20m 묶여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고 높이 20m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용적률(2종 지역 200%, 1종 지역150%) 및 건폐율(1·2종 60%)부분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채기수 보광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 전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20m 이하(완화 시 28m이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기섭 수유1-1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의 고질병이고 숙원사업인 최고고도지구 해결책 모색에 감사드리라며, 법적인 규제를 풀어서 가로주택정비법으로 구획을 나뉘어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고, 경전철 구간은 지구 조정해서 영업활성화를 기해달라고 하였다.

강철 삼흥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조합을 결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계속 존치하여 현장답사 등 꾸준히 계속해서 지역 활성화에 앞장



▲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완화 특별위원회 이용균 의원, 이정식 의원, 이백균 위원장(좌로부터)

서 줄 것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받은 보광연립, 삼흥연립에 대하여는 건물 붕괴 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채기수, 황기섭, 강철 위원장은 몇 년간 여러 번에 걸쳐 최고고도지구 특별위원회와의 회의를 가져왔으나, 현실적인 해답은 매번 찾지 못하였으며,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사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많이 지친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수유1-1구역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법으로 구획을 나누어 추진하기에는 약5년 전 설립한 조합의 그간의 활동에 있어 발생해 온 비용들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최고고도지구 특별위원회 구성의원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현 의원(이백균, 이정식, 이용균)들이 특별위원회 의원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이정식 부위원장은 “최고고도지구 해당구역 의원들로 필요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느끼기에 구성되었으며, 특

별위원회의 인기는 6개월이며, 향후 6개월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고 밝혔다.

이용균 의원은 “수익성 문제로 전개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난관에 빠진 듯하다” 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수익성이 없어서 시공사에서도 진행이 되지 않고,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에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최고고도지구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한 방법을 통해 “우선 보광연립과 삼흥연립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후 향후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계획 중이다” 며 “그때 자리하여 고충을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가 11월 26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관계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수유지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한자리에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위 주민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는 제183회 임시회 폐회 중 지난 11월 26일 오전 1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광연립 채기수 재건축추진위원장, 삼흥연립 강철 재건축추진위원장, 수유1-1구역 황기섭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수유1-1구역은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통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에 대한 계획과 보광연립 및 삼흥연립 일대 재건축사업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내용과 5층 20m 묶여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고 높이 20m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용적률(2종지역 200%, 1종지역150%) 및 건폐율(1·2종 60%)부분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채기수 보광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 전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20m이하(완화시 28m이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황기섭 수유1-1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강북구의 고질병이고 숙원사업인 최고고도지구

해결책 모색에 감사드리라며, 법적인 규제를 풀어서 가로주택 정비법으로 구획을 나뉘어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전철 구간은 지구 조정해서 영업활성화를 기해달라고 했다.

강철 삼흥연립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조합을 결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존치하여 현장답사 등의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 서 줄 것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받은 보광연립, 삼흥연립에 대하여는 건물 붕괴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수익성이 없어서 시공사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우선 보광연립과 삼흥연립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향후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